

폭염 · 열대야 · 태풍까지 '8월의 악몽'

지난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유독 높았으며 강수량은 후반부 태풍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상청이 발표한 8월 기상 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은 고기압과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다가 후반에 태풍 상륙과 잦은 비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7.3도로 평년 25.1도에 비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과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폭염이 이어지다가 8월 초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종다리(JONGDARI)'가 제주도 남쪽을 지나면서 동풍이 유입됐다. 여기에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다.

지난 8월1일 서울은 1907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최고기온인 39.8도를 기록했다. 전국 역대 최고기온도 같은 날 강원도 홍천 41.0도로 신기록을 세웠다.

8월의 전국 폭염일수는 14.3일로 1973년 통계작성 개시 이후 2016년(16.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일수는 9.9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폭염일수도 19일로 2016년(20.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열대야일수는 17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여름철인 6~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평년(23.8도)보다 높았다. 1973년 통계작성 이후에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올해 각각 31.4일과 17.7일로 모두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봐도 각각 35일과 29일로 1위, 3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8월의 전국 강수량은 282.1mm로 평년(220.1mm~322.5mm)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달 강수량은 태풍의 영향으로 후반에 집중됐다.

8월 중반까지는 동풍의 유입과 대기불안정으로 비가 내렸으나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하지만 후반에 태풍 '솔리(SOLLIK)'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해졌다.

솔리는 22~24일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목포 부근으로 상륙해 충북과 강원남부를 통과했다. 이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와 지형적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도, 지리산과 태백산맥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또 태풍 솔리가 통과한 후에는 국내 북쪽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하는 가운데 남쪽에는 북태평양고기

여름철 전국 폭염 · 열대야일수 통계 이후 1위

고기압과 태풍에 무더위 지속되다 후반부 약화

8월 기준 태풍 9개 발생해 2개가 국내 영향 미쳐

앞이 동서로 발달 남북으로 폭이 좁은 수증기 통로가 형성됐다. 이 통로를 따라 중국 남부의 열대저압

부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국지성 호우가 있었다. 8월에는 총 9개의 태풍이 발생했

으며 이 중 제18호 태풍 롬비아(RUMBIA)와 태풍 솔리가 국내에 영향을 주었다.

또 현재까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총 21개의 태풍 중 18개가 여름철에 발생해 평년(11.2개) 이상을 기록했고 뿌라베룬(PRAPHOON), 롬비아, 솔리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뉴스스



대형 천막으로 가려진 붕괴현장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 서 공사관계자들이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 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지난 3월 1차 점검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학생 수강생, 학부모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다.

이번 점검대상은 앞서 진행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조사(4~6월) 결과 미제출된 대학 2곳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제고토록 했으나 미참여한 학원 2곳이다. 다만 소관부처인 교육부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

한 대학은 제외됐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이다.

점검 절차는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적발 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 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점검결과 대학 15곳, 민간교육기관 5곳 등 총 20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이 확

인됐다. 위반율은 90%이며 평균 1.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21건 중 15건(71.4%)이 안전조치위반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집동의 위반 2건, 목적 외 이용·재용 제한, 동의방법 구분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업무위탁 문서계약 위반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조치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접근권한 관리(39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접근통제(36건), 개인정보 암호화(23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20건), 물리적 안전조치(3건) 위반 등으로 분석됐다.

뉴스스

광주시, 축산물위생법 위반 6곳 행정처분

광주시가 여름철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6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5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소 91곳 중 6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축

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적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품 자기품질검사 실시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서은홍 기자

美, 아프간 IS 지도자 에르하비 사망 확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우두머리인 아부 사드 에르하비가 공습으로 사망한 사실을 2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5일 남가르하르주 본부 은신처에서 아프간군 및 해외군 지상·공중 군사작전으로 에르하비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에르하비와 함께 다른 10명의 IS 요원들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르하르주는 파키스탄과 접한 동부 국경 지대에 있으며 파키스탄 탈레반이 넘어와 은신했으나 최근 아프간 IS의 주 거점이 됐다.

아프간 탈레반은 아프간을 5년 동안 엄격한 이슬람 사리아 율법으로 통치하다 뉴욕 테러 직후 침입한 미군에 의해 시골로 축출됐다. 미군 등 나토군 주도의 다국적군은 한때 10만 명 넘게 주둔했으나 2013년 말 철수하고 1만3000명의 지원병만 남았다.

아프간 IS 조직은 기존 탈레반에서 이탈한 독자 세력이다. 사망한 에르하비는 2016년 7월 이후 미국에 의해 살해된 세 번째 최고지도자다.

앞서 남가르하르 주지사는 에르하비가 지난해 7월 이후 사망한 네 번째 IS 아프간 지부 지도자라고 밝혔다. 전 지도자 아부 사야에드도 남가르하르주에서 공습에 사망했으며 사야에드의 전임 지도자 2명 역시 미군과 아프간군 공동 작전에 사살됐다.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유물 상당수 소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대형 국립박물관에서 2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건물이 거의 전소되고 2000만점에 달하는 유물 상당수가 소실됐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이 국립박물관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불이 번졌다.

다행히 박물관 운영이 종료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 현장에는 80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 2개가 작동하지 않아 초반 진화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다행히 인근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지정무렵 불길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대변인은 "박물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에서 다량의 유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며 박물관 소장품 일부는 소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라질 국립박물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818년 주앙 6세 당시 포르투갈 왕이 이집트 미술품이나 공룡 화석 등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건립했다. 현재는 이집트 및 그리스·로마 유물, 그리고 브라질에서 발견된 다양한 화석, 브라질 왕족 유물 등 2000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다고 알려졌다.

또 이 박물관은 리우데자네이루 연방 대학과 연계해 인류학, 고고학, 고생물학 등 다양한 전시회를 여는 등 남미의 자연사나 인류학 연구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했다.

현재로서는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물관 노후에 따른 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박물관은 노후화가 진행돼 관련 공사 필요성이 지적돼 왔으나,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예산 삭감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서 최수 400여명 교도소 탈출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조직들 간의 유혈충돌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아인 자라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최수 400여명이 탈출했다.

현지 경찰은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최수들이 문을 여지로 열고 도망쳤다"면서 "간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출하는 죄수들을 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인 자라 교도소는 트리폴리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무야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독재자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수 수감돼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2일 트리폴리에서는 로켓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트리폴리에서는 무장조직들 간 충돌로 최소 3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99명 발생했다.

이에 유엔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 정부는 2일 트리폴리와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무장단체들에 즉각 전부를 중단하고 유엔이 중재한 휴전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